

한국 여자배드민턴, 아시아 정상 올랐다

8일 아시아단체선수권 결승전서 중국 3-0 완파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앞세워 10년 만에 첫 우승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제패하고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8일 중국 칭다오 콘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그동안 일정과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2군급 선수들을 파견하기도 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 안세영을 비롯해 세계적인 상위 랭커들을 총출동시킨 '완전체' 라인업을 가동했다.

강력한 우승 의지를 드러낸 한국은 이로써 2016년 대회 창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중심을 잡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5-0 승)와 대만(4-1 승)을 잇달아 격파하며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이어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잠재웠고, 안세영이 휴식을 취한 준결승에서도 인도네시아를 3-1로 물리치며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도 안세영이 첫 주자로 나서 한첸시(38위)를 39분 만에 2-0(21-7 21-14)으로 완파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여자복식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가 지아이판-장수현 조를 2-0(24-22 21-8)로 눌렀고, 김가는(삼성생명·세계랭킹 17위)이 쉬원징(127위)을 2-1(19-21 21-10 21-17)로 물리쳐 5전 3승제 방식에 따라 우승을 완성했다.



아시아단체선수권 우승을 이끈 안세영.

연합뉴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단체전으로, 세계 단체 선수권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이번 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오는 4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본선 출전권을 일찌감치 자력으로 확보했다.

한편 '에이스' 서승재(삼성생명)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남자 대표팀은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에 2-3으로 패아픈 역전패를 당해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남자 대표팀 역시 4강 성적으로 세계남자단체선수권대회(토마스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또 부상 8일 첼시와 홈 경기서 근육 통증 호소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소속의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부상에 또 쓰러졌다.

황희찬은 8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프리미어리그(EPL) 2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다가 팀이 0-3으로 뒤지던 전반 43분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황희찬은 아쉬운 표정으로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눴고, 결국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와 교체됐다.

힘을 앞세운 돌파가 장기인 황희찬은 한 시즌에 두어 번은 여러 주전열에서 이탈할 정도로 부상이 잦다. 올 시즌에도 지난해 10월 대표팀 소집 기간 종아리 부상을 당해 한동안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지난달 시즌 2호 골을 터뜨렸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리그 경기에서도 부상에 교체된 바 있다.

황희찬을 잃은 울버햄프턴은 후반 9분 톨루 아로코다레의 골로 한 점만 만회하며 1-3으로 패했다. 첼시의 골잡이 폴 파머는 단 25



황희찬이 전반 43분 근육 통증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연합뉴스

분 만에 3골을 터뜨리며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리그 5경기(2무 3패) 무승의 늪에 빠진 울버햄프턴은 승점 8로 리그 최하위(20위)에 머물렀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승점 26)와의 격차는 승점 18로 벌어졌다.

부진한 데다 주전 공격수 황희찬까지 다친 울버햄프턴의 강등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레이스 첫날 첫 금은 남자 스키... 개최국 이탈리아도 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조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일(현지시간) 한국 선수단은 컬링 믹스더블에서 극적인 첫 승전고를 울렸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은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조의 코르티나 컬링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믹스더블 라운드르빈 6차전에서 미국의 코리 티시-코리 드롭킨(미국)과 연장 접전 끝에 6-5로 이겼다.

5연패를 당했던 김선영-정영석은 귀중한 1승을 수확해 1승 5패를 기록했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서울특별시청)은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팀 이벤트에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10

km 스키에슬론에 출전한 이의진(부산광역시 체육회)과 한다솜(경기도청)은 완주에 실패한 가운데 각각 54위와 65위에 자리했다.

메달 레이스 첫날엔 총 5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체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에서 나왔다.

스위스의 프란코 폰 알만이 1분 51초 61로 1위에 오르며 생애 첫 올림픽 경기를 금메달로 장식했다. 개최국 이탈리아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프란체스카 톨로브리지가 3분 54초 28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 스키에슬론에서는 스웨덴의 카를손(53분 45초 2)이 금메달을, 스노보드 남자 빅 에어에서는 일본의 기무라 기라(179.5점)가 금메달을 땀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리스트들의 세리머니 8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 경기에서 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SK FC 2026시즌 등번호 확정

권창훈 '애착 번호 22'

'벤투호의 황태자' 권창훈이 애착 번호 22를 달고 뛴다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SK FC가 지난 6일 2026시즌 선수단 등번호를 공개했다.

김동준(1번), 이탈로(5번), 이창민(8번), 남태희(10번), 정운(13번), 유인수(17번), 안찬기(21번), 임창우(23번), 최병욱(24번), 김준하(27번), 김륜성(40번) 등 기존 선수들의 등번호는 대부분 변화가 없다.

가장 관심을 모은 영입 선수 권창훈은 제주SK에서도 각급 연맹별 대표팀부터 프로커리어까지 애착했던 22번을 단다.

새로운 No.7의 주인공은 부천

FC1995에서 이적한 박창준으로 결정됐다. 리투아니아 대표팀 출신 공격수 기티스는 스트라이커의 상징과 같은 9번을 선택했다.

멀티 플레이어 김신진은 18번을 달았고, 브라질 출신 윙어 네게바는 94번 유니폼을 입는다. 또한, 세레스틴은 수비수의 상징인 3번을 달고 이번시즌을 맞이한다. 허재원(29번), 권기민(6번), 박민재(47번), 강동휘(55번) 등 신인 선수들의 등번호도 결정됐다.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등번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다른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며 "기존 등번호를 선택한 선수들은 변함없는 활약을, 새로운 등번호를 결정한 선수들은 멈추지 않는 발전과 열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한 성 울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리 서동경로당
회 장 강 용 치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서귀포불교대학 제21대 총동문회장



장 은 술

서귀포불교대학 제21대 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재 서귀포시 해남향우회
회 장 공 석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애월읍 노인회장



강 달 선

애월읍 노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귀농협 퇴직동우회
회 장 양 성 수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임 용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교수



유 성 훈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대기고 26회 졸업
(부 : 유호암·모 : 한정연)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교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덕리 소재물 모임 일동